



# 여수엑스포 유치 '표심 잡기' 총력전

## ■ 제2차 국제심포지엄 개막

### BIE 대표단·석학 등 200여명 참석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11월 27일)를 두 달 남 앞두고 여수엑스포 유치의 확고한 계기로 삼기 위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의 막이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오는 16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진행될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00여명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등 세계적인 석학도 참석한다. 유엔 기후변화 특사, 피터 브리지워터 국제심포지엄 사무총장 등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와 박람회유치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등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엑스포 유치 경합국인 모로코와 폴란드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쟁국과 비교해 우세한 국력

과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방안 강구 등 인류공영을 위한 여수엑스포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적절성, 한국의 적극적인 엑스포 개최 의지 등을 알려 부동표를 끌어 모으는 계획이다.

'제3의 물결'과 '권력 이동' 등 세계적인 심포지엄은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00여명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세계가 직면한 위험들'이라는 주제의 첫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타바우 테이 투발루 부총리는 13일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2차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김재철 여수박람회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이산화탄소(CO)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침수라는 큰 피해가 닥쳐올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발루에는 2월과 3월 '스트링 타이드'라는 조수가 흘러들어오는데, 갈수록 조수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어, 침수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대형 조수가 사이클론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투발루에는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 브리지워터 국제심포지엄(람사) 전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양의 염도와 순환형태가 바뀌고 있다"면서 "일부 학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까지 앞으로 10년

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행사는 서울에서 오는 14일까지 개최되며, 15~16일에는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여수를 방문해

여수신항 부두 및 엑스포홍보관, 광양철교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유치위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한 세계 각국의 장·차관과 BIE 대표들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개최지 결정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2차 심포지엄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北 우리나라농축시설 해외엔닉 의혹 美소식통 "현실성 적다"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nuclear material)을 비밀리에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12일 미 언론에서 제기돼 순항하고 있는 북한 핵 폐기 협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정찰비행을 실시, 핵시설(nuclear installations)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북한이 핵물질 일부를 시리아에 공급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한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아즈-조르 지

역은 북한과 시리아간 핵무기 협력 현상으로 의심받은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관리와 전직 정보관리들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북한의 대시리아 핵물질 제공은 기술적으로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다른 미 소식통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들이 미국내에서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판매하면서까지 순항중인 미국과의 핵폐기 협상을 순삭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美, 북에 중유 제공 준비

2,500만달러 상당

미국은 북한의 초기 핵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긍정적으로 판단, 북한에 첫 선적분의 중유 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천500만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12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로이터는 이날 조지 부시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단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첫 중유 선적 검토를 시작해도 좋을 정도로(북핵폐기) 초기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금년 베이징 2·13 합의의 실행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의 초기 폐쇄조치에 나서면 중유 5만톤을 먼저 제공하고, 북한이 2단계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연합뉴스

## “한국경제 발전 위해선 교육제도 개편해야”

### ■ 심포지엄 기초강연 앨빈 토플러



회의 새로운 경제구조가 반드시 환경에 나쁘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고통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유용하고 생산적인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 한국 경제의 미래에 조언을 한다.

▲ 제도 변화와 개혁에 열중해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은 필요가 없어진다. 미래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창조성을 제공해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은.

▲ 기후변화에 따른 어두운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장기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현재에는 과거에 없었던 훌륭한 인력과 도구가 있다.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기초강연자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3일 인터뷰에서 여수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제도개혁에 열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심포지엄 참가 소감은.

▲ 여수 세계박람회는 경제와 사회분야, 특히 해양분야에서 가속되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가 함께 바다의 미래를 살펴보고,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바다를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발전속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번 박람회가 그 속도 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전세계 국가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속도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정부보다 급속히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각 부분마다 다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해양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견해를 어떻게 보나.

▲ 과거 산업화시대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3의 물결인 지식사회에서는 자원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 지식산업사

## 여수 시민 14~16일 태극기 달기 운동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전 여수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여수시와 시민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에 온 BIE 회원국 60여개국 200여명의 대표들의 여수 방문에 맞춰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기간 동안 여수시내 각 가정은 물론 상가와 기업체, 시내 주요건물 등에 일제히 태극기가 게양된다.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마을 영피방송을 통해 읍·동별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를 서로 독려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실사패의 유치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수시민의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용 여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15일 오후 여수 시내버스가 무료 운행된다. /여수=박영기자 ykpark@

## 세계적 기업가들 '부의 6원칙'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3일 베스트셀러 작가 폴 맥케나가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인터뷰한 끝에 발견했다는 '부(富)의 6단계 원칙'을 소개했다.

일단 성공을 향한 첫번째 원칙은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찾아라'는 것이다.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세번째 원칙은 '행동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 후 위험을 감수하라'는 게 네번째 원칙이며 '행동은 빠르게'가 다섯번째 원칙이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구상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행동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을 위한 마지막 원칙은 '위기를 예상하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은 뒤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연수일정

- 개강일시 : 주중반 : 2007. 9. 14(금) / 주말반 : 2007. 9. 15(토)
- 모집기간 : 8. 17(금)~9. 15(토)
- 수업기간 : 2007.9.14~2008.2.23(6개월/24주)
- 수강료 : 32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062)950-3584, 3585, HP.011-614-4160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 과 정 : 주간반(10:00~13:50) / 야간반(19:00~22:30)
-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진도별 진행)
- 교수진 : 한영호·박한수 교수(터지직강)
- 기 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방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일)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 과 정 : 정보기술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기술2과정(월.수.금 19:00~21:00) /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수시) /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 훈련수료 후 개별별 환급(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정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새무공무원 1800여명 율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 전남교육행정직을 잡아라! =

속도 5주 완성 문제풀이반

- 시험 : 10월 27일 시행
- 인원 : 128명 공채
- 접수 : 10. 2. ~10. 5까지

개강 : 9월 17일 오후 (종합) 반 모집 (현재성달원수출)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매일 핵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점점"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제일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리마트 앞영광빌딩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9급 공무원** 개 10월 1일

개강 : 9월 11일

공무원 이론반 2주 완성 문제풀이 (24시간)

공무원 문제풀이 1주 완성 문제풀이 (24시간)

기술직 단번반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